



ISSUE BRIEFING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전북의 대응방안

이슈브리핑
2022. 04. 01 vol.261

연구진
김동영_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1.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배경과 향후 쟁점

1) 도입배경

□ 시민참여형 농어촌 재정유입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에게 고향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재정이 취약한 농·어촌을 돕고자 하는 포용적 성장 의지를 일깨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염명배, 2010)
 - 지방인구의 수도권 이전에 따른 국가발전에 대한 지방의 기여를 인정하고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에 대한 사랑과 직접 기부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위한 재정확충에 기여
-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최근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제기된 고향기부제 제도 도입 주장은 새로운 지방재정 확보전략으로써 의미가 있음(김동영 외, 2016)
 - 출향주민 중 기부 의사(24.5%)가 있는 경제활동참여자(61.1%)가 소득세의 10%를 고향에 기부할 경우 16개 시도의 기부총액은 3,947억원으로 추정되고, 전라북도는 약 374억원¹⁾의 재정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김동영 외, 2016)

□ 세액공제를 통해 국세의 지방이전효과

- 일반적인 조세는 자신이 속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향기부금은 자신이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에 자신이 선택한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세제도와 차이를 가짐
- 고향사랑기부금은 조세는 아니지만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분²⁾에 한해 16.5%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국세의 지방이전효과가 있음
 - 고향기부에 의해 기부금이 국세인 소득세에서 공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의 경우 최소 3,947억원에서 최대 2.6조원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음(김동영, 2017)

□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활성화의 단초

- 수도권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광역도와 기초단체는 대부분 목적이 분명한 예산 외에 지자체 차원의 사업을 위한 자체예산이 매우 부족
 - 특히 2021년 기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27%, 27.7%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음(KOSIS)
 - 지방세비율을 보면 2020년 기준 수도권 55.4%, 비수도권(시) 17.2%, 비수도권(도) 27.4%

1) 전라북도의 재정유입효과는 “출향도민 1,891,094명×기부 의사 24.5%×152,792명(경제활동인구 61.1%)×132,235원(소득세 10%기부) = 약 374억원”

2) 1인 연간 기부한도는 모든 지자체를 합산해 500만원으로 제한

-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구상하고 시민들이 직접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고향사랑기부금을 투자하여 복합적인 지역문제해결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문화예술보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2) 향후 쟁점

□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갈등 및 지역 간 갈등심화

- 현행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음
- 고향사랑기부금의 1차적인 대상이 출향인이고 2차적인 대상이 지역과 연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때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
 - 기초단체에 비해 광역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고향으로서의 애착이 작음
 - 가능한 한 14개 시군이 출향인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하고 광역단체는 추가로 기부하거나 출향인이 아닌 타시도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하여 지자체간의 기부금 모집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지방자치단체 간 기부금 유치경쟁이 과열화되면서 지역갈등 초래 우려

□ 운영비 과다에 따른 재정유입효과 미비

-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은 기부금의 30%이하로 설정하고 있어 답례품에 의한 도덕적 해이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답례품 경쟁으로 인한 추가 경비지출 우려가 있음
 - 답례품에 따른 기부금 납부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 고가와 고품질의 답례품을 할인하여 제공할 경우 답례품 경쟁으로 인한 경비의 초과지출 우려
-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을 위한 광고의 경우 전화, 서신, 문자, 호별방문, 향우회 방문 등은 금지하고 있지만 전년도 기부금의 15%이내에서 광고 매체를 통한 홍보는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액이 공개될 경우 지자체의 순위가 공개돼 어떤 방식으로든 기부금을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외에 지자체 자체적으로 광고비를 과대하게 투자하여 실질적인 지방정부의 재정유입효과가 미비할 수 있음

□ 기부금액 예상불가로 계획적인 사업추진 어려움

- 고향사랑 기부금은 조세와 달리 강제성이 없어 개인의 기부의사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세수 예측이 부정확하여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움
- 고향사랑기금에 기부금을 축적하면서 예산에 다른 사업영역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의 예측 부정확성을 보완하는 방식 필요

2.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전복 대응방안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었고 2023년 1월 1일 시행예정
-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부주체를 출향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고 기부대상도 고향으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지 이외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는 점
- 고향사랑기부금법은 1조 목적을 시작으로 17조까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주체 및 대상, 모금방법, 답례품제공, 사업영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액공제, 답례품한도 등은 향후 시행령 제정 예정

〈표1〉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구성

구분	내용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주체 및 대상	· 기부자: 개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 기부처: 자치단체(광역, 기초) · 기부 불가: 법인, 해당 자치단체 주민, 이해관계자
모금방법 및 운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 전년도 기부금액의 15%이내의 범위에서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시행령 제정예정)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기관 위탁가능
기부액 및 혜택	· 연간최대기부금: 500만원 · 세액공제: 10만원 전액공제, 10만원초과 16.5% 세액공제(시행령 제정 예정) · 답례품: 기부금의 30%이내 지역특산물(한도지정에 관한 시행령 제정 예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전북의 대응방안

구분	내용
답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 금지품목: 현금·귀금속·보석·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닌 상품권 등
사업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분석, 연구 · 정보시스템(홈페이지) 구축운영 ·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공개

〈표1〉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구성(계속)

자료: 법제처,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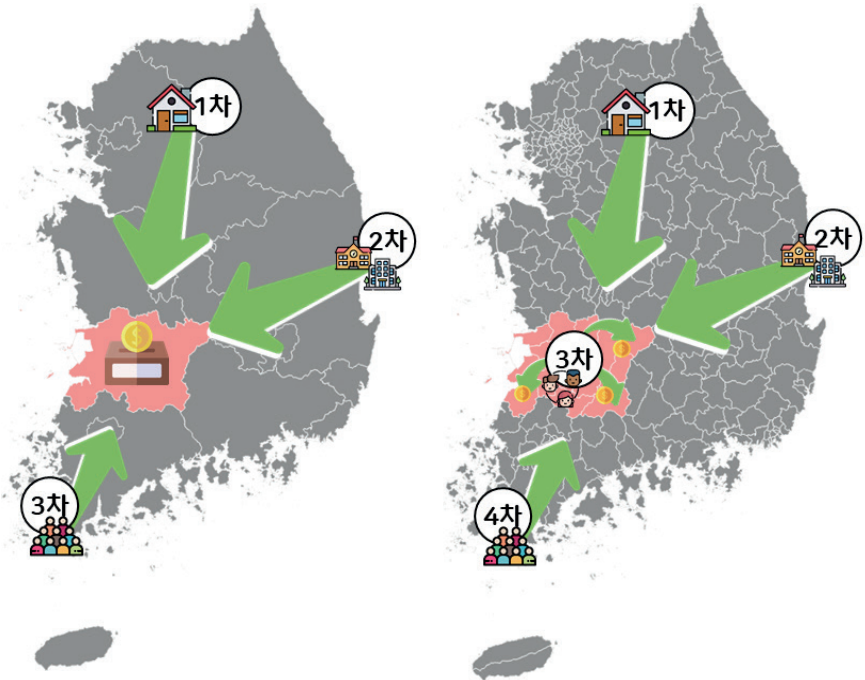
□ 모금주체 및 대상

- 모금주체는 크게 광역단체와 기초지자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모금대상은 광역단체는 광역시도 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지만 기초지자체는 같은 광역시도 내에 거주하더라도 해당 기초지자체에 거주하지 않으면 기부금 모집 가능
- 전라북도와 시군이 출향도민을 대상으로 과열된 경쟁을 하지 않도록 시군이 우선적으로 기부금모집 후 전라북도는 추가적인 기부가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부금 모집추진
-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금 모집대상 1차 타겟은 고향을 떠나 타지에 살고 있는 출향민이 될 것이며 2차적인 모집대상은 학교, 직장 등으로 인해 연고가 있는 사람, 3차적인 모집대상은 전라북도 외 거주자 일반으로 설정
 - 『고향기부제 도입방안 및 지방재정 유입효과 분석』(김동영 외, 2016)에 의하면 출향도민의 수는 201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를 2014년 주민등록 인구수 1,856,624명을 기준으로 지역별 출생주민(3,426,127명)에서 고향거주주민(1,535,033명)을 뺀 약 189.1만명으로 추정
 - 2014년 주민등록인구대비 출향도민 구성비를 2021년 12월 주민등록인구 1,786,855명에 적용할 경우 현재 출향도민은 약 181.8만명으로 추정

○ 기초지자체 시·군의 고향사랑기부금 모집대상 1차 타겟은 출향민, 2차 타겟은 연고가 있는 사람, 3차 타겟은 도내 타 기초지자체 거주자, 4차타겟은 도외 기초지자체 외 거주자

- 도내 거주자 중 자신이 태어난 시·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군에 기부금을 낼 수 없으므로 도내 타 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하도록 유도 필요
- 전라북도는 도내 시·군 출생 및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도내 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하고 기초지자체는 타기초지자체와 연계협력방안 모색 필요
- 자매결연 지역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매결연도시민들이 해당 지자체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서로 연대필요(예: 부안군 자매도시 충주시, 포항시, 광명시, 서울시 도봉구)

〈그림1〉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금 모집대상
 〈그림2〉 기초지자체 고향사랑기부금 모집대상



□ 모금 및 운영방안

-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설치와 운영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고향사랑기부금 운영방안은 크게 지자체 자체적으로 모금 및 운영을 주관하는 방안과 모금 및 관리는 민간단체가 주관하고 지자체는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주관하는 하는 민관협력방안이 있을 수 있음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전북의 대응방안

구분	지자체	민관협력
기부금 모집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민간이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사업추진	사업발굴 및 추진	민관협력 사업발굴 지자체가 사업추진
성과관리	기부자관리 및 사업성과 공유	민관협력 기부자관리 지자체가 사업성과 공유

〈표2〉 고향사랑기부금 운영방안

- 지역 청년과 다양한 주체의 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의 고유성에 기반 한 독창적인 홍보방안과 답례품 선정 등의 차별성을 만드는 방안 필요
-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위한 필요경비는 답례품과 홍보비 그리고 행정 사무비
 - 일본의 고향납세는 2019년 총 모집 기부금액 대비 46.7%를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지방정부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 부분은 답례품 조달비 28.2%, 답례품 배송비 7.7%, 홍보비 0.7%, 결제수수료 2%, 행정사무비 8.1% 순(일본총무성(2020), 경기연구원(2020) 재인용)
-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의하면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모집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답례품은 기부금의 30%이내(최대 100만원)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금운동을 위한 청년일자리와 고용사업으로 추진가능

□ 답례품관리

- 지역생산 한정 답례품
 -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특산품을 종합세트로 만들어 다양한 형태의 답례품 유형제작
 - 일본의 홋카이도 아비라정은 지역 사업자 신청을 통해 70여개의 상품을 햄 11종 세트, 치즈 종합세트와 같은 형태로 종합세트 제작
- 고향사랑상품권 또는 포인트제
 - 전라북도 특산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한 전북고향사랑상품권 또는 전북고향사랑기부금 홈페이지에서만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
 - 나가사키현 히라도시는 유효기간이 없는 포인트를 부여하여 다음해 이후에도 포인트를 합산해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생필품에서 고품질까지 답례품의 선택의 폭을 넓힘
 - 택배업체와 답례품 포장발송을 제휴하여 답례품 발송에 사용되는 박스를 공동 제작하고 박스에 지자체명과 택배사를 공동기제하여 택배사 측에서도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배달하도록 책임감을 부여 함

○ 기념 및 기록화

-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처와 연계하여 영구적인 기념비나 기록화를 통해 물품보다는 기부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남기는 방안
- 도쿄도 코쿠분지시는 관광안내간판제작 프로젝트를 위해 고향기부금을 사용하여 관광안내간판을 설치하고 간판에 기부자의 이름을 새김
- 히로시마현의 폐교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에서는 기부자에 대한 답례로 신발장에 기부자의 이름을 새기도록 하였음

○ 방문(관광) 및 살아보기 프로그램 제공

- 지역 체험형 답례품을 통해 지역관광이나 1달 살기 등의 다양한 형태의 방문기회를 넓히고 향후 지역이주로 유도하기 위한 방문형 답례품 운영
- 일본의 아비라정의 테스트이주와 유채꽃 웨딩,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세타가야 미술관 연간 프리패스권,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의 이주자 체험하우스, 카미시호로 견본시장 투어 등 지역 체험형 답례품 운영 중

□ 사업영역

○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의한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처는 아래와 같음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세부적인 사업발굴을 위해서는 복지, 문화, 농업, 지역개발 등 지역주민의 복리와 관계된 부처 협동을 통해 사업발굴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복리혜택사업 선정 필요

○ 일본의 고향납세 기부금의 지방정부 사업분야를 보면 교육 및 인재양성, 건강·의료·복지분야, 아동·육아분야, 지역산업진흥 분야 순

〈표3〉 일본 고향납세 기부금에 의한 지방정부의 주요사업

사업분야	지방정부	사업분야	지방정부
교육·인재양성	1,370	스포츠·문화진흥	1,116
건강·의료·복지	1,343	마을만들기·시민활동	1,066
아동·육아	1,323	관광·교류·정주촉진	1,027
지역·산업진흥	1,257	안전·방재	776
환경·위생	1,174	재해지원·복구	289

자료: 일본 총무성(2020),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 경기연구원(2020) 재인용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전복의 대응방안

분야	사업명	지자체명	활동내용
마을만들기 시민활동	다함께 아이들 안전지킴대	후쿠이현 사카이시	아동, 학생 등학교시 통학로에서 안전을 지 키는 '아동지킴대'의 유니폼 통일하여 아동 에게 안심감 부여, 봉사활동 의식고양 도모
스포츠 문화진흥	고지대 트레이닝용 수영장 관련시설 정비	나가노현 도미시	일본 굴지의 고지대 트레이닝 지역을 목표 로 표고 1750m의 유노마루 고원에 고지대 트레이닝용 수영장과 관련 시설 정비
건강·의료·복지	오사카 스이타 하우스 지원기금	오사카부 스이타시	국립순환기병원연구센터에 입원하는 소아 환자 가족이 저렴한 요금으로 숙박가능한 '오사카 스이타 하우스'이전에 필요한 비용 지원
환경 위생	상림보전사업	홋카이도 신타쿠정	마을초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하는 식재사업 을 통해 저탄소화 및 환경에 배려한 마을만 들기 실시
교육 인재육성	미노 도자기 제자육성	기후현 타지미시	지역자랑인 미노도자기 후계자를 비롯해 도자기디자인, 크راف트작가, 도예가를 폭 넓게 육성
아동 육아	왕따, 등교거부로 고민하는 고교생 지원	후쿠오카현	고교생 지원을 위해 진로상담, 카운슬링, 학 습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는 학습지원센터 보조
지역 산업진흥	멧돼지뼈 라면 전문점 개업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수해대책과 새로운 명물을 만들기 위해 지 역만들기 협력대원에 의한 멧돼지뼈 라면 전문점 개업지원
관광교류 정주촉진	야마가타 토란탕문화 의 미래전승을 위한 일본 최대냄비 제작	야가타현 야마가타시	일본 제일의 토란탕축제를 지원하는 일본 최대냄비 제작 지원
안심·안전·방재	안전·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만들기	홋카이도 이시카리시	범죄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을 목표 로, 교통안전추진, 방범활동, 폭력추방운동 등의 활동 실시
재해지원 복구	오오츠치역 복구사업	이와테현 오오츠치정	동일본대지진 해일로 인해 유실된 오오츠 치역 재건으로 쿠시로지역 재건을 지향

〈표4〉 일본 고향납세 지자체
사업내용

자료: 일본 총무성(20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9) 재인용

- 기부자가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여 지역사업에 대한 애정과 기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필요

- 일본은 고향납세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1,649단체로 전체 92.2%에 달하며 구체적인 사업까지 선정가능한 지자체가 200단체로 11.2%

3. 향후계획

□ 고향사랑준비단 구성·운영

- 전북고향사랑기부금의 범도민 인식 제고와 참여 확산, 기부제 활성화 방안 강구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제도 시행 대책 마련을 위해 전라북도 고향사랑준비단 구성·운영
 - 총괄분과: 기획조정실
 - 사업분과: 대도약청년과, 농업정책과, 문화예술과, 관광총괄과, 사회복지과, 지역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관
 - 홍보분과: 홍보기획과, 공보관
 - 재정분과: 예산과, 세정과
 - 답례품분과: 농촌활력과, 관광총괄과, 경제통상진흥원
- 고향사랑준비단은 전라북도 자체적인 행정조직으로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 전에 전라북도 차원에서 준비해야할 사항과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 수행
 - 전북고향사랑기부제 조례제정 및 전북고향사랑기금설치를 위한 제반여건 마련과 기초지자체와 연계협력방안 모색
 - 향후 독립적인 조직체로 과단위로 고향사랑지원단 구성 필요

□ 민관협력 고향사랑추진단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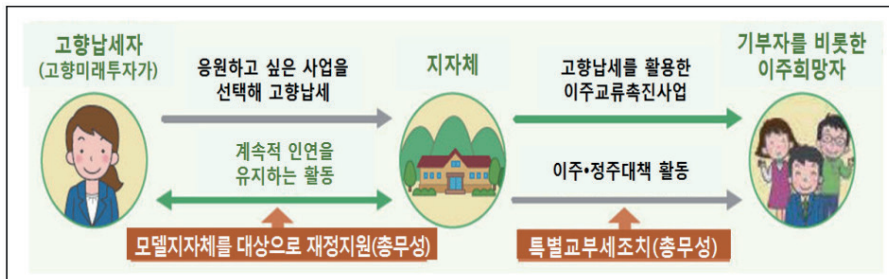
- 고향사랑준비단이 행정적 차원에서 준비해야할 제반여건을 마련하는 역할이라면 고향사랑추진단은 고향사랑기금의 실질적인 운영을 전담할 운영주체
- 고향사랑추진단은 도내 농어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청년 등의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체로 구성하고 전북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와 마케팅, 답례품 개발 지원 등을 추진
 - 운영주체 선정 또는 운영인력 모집, 홍보 및 마케팅 방안 마련, 답례품 개발 및 디자인 방안 모색, 기부자 관리 및 방문과 장기이주 연계 모색 등

□ 관계인구화 및 지역이주 연계

- 고향사랑기부금 납부자는 원래 고향이거나 새로운 고향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향후 자신이 선택한 고향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와 기부자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관계인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전북의 대응방안

- 관계인구란 정주인구나 교류인구와는 달리 지역과 지역의 사람들과 다양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로 지역 외 인재와 계속적이고 복층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해 인재와 고향과의 관련성을 심화·지속시켜 장기적으로 이주와 정주를 촉진 (일본 총무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9) 재인용)
- 일본은 고향납세와 연계하여 고향이주 교류촉진 프로젝트 추진 중
 -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고향납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을 모아 이주교류사업을 추진하고 기부자를 ‘고향미래투자자’로 생각하여 고향에 대한 관심과 인연을 맺는 활동 추진
 - 기부자가 고향납세 지역에 방문하거나 이주를 계획하면 지자체는 이들에게 이주와 정주를 위한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이주·정주사업 촉진



〈그림3〉 고향이주 교류촉진 프로젝트 추진방법

자료.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 포털사이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라북도와 기초지자체에 납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이주 희망자를 모집하고 고향이주 희망자관리와 중장기적 이주지원
 - 전북지역 이주희망자에 대한 정보발신
 - 이주체험 및 상담대응
 - 이주자의 정주정착을 위한 환경정비 및 지원

〈참고문헌〉

김동영, 2017, 고향기부제 도입방안 및 지방재정 유입효과 분석, 「2017년 한국재정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동영·양성빈·김형오·이중섭, 2016, 고향기부제 도입방안 및 지방재정 유입 효과분석, 「ISSUE BRIEFING」, Vol.149, 전북연구
 류영아, 2022,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의 주요 내용 및 의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928호
 염명배, 2010, 일본 '후루사토(故郷)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한국형' 고향세(향토발전세) 도입 가능성 검토, 「한국지방재정논집」, 15(3): 71-111.
 이현우·이수행·가선행, 2020, 자치분권시대의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홍근석·염명배, 2019, 일본 고향납세제도 현황과 우리나라 적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iSSUE
BRIEFING

이슈브리핑

2022. 04. 01 vol.261



발행인 권혁남 발행처 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